

한국 시위참여의 결정요인: 전통적 요인과 물질주의 및 탈물질주의 간 상호작용 효과를 중심으로

도묘연 | 계명대학교*

| 국문요약 |

이 연구의 목적은 시위참여의 결정요인을 규명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사회경제적 특성, 이념, 평상시 정치적 관여의 전통적 요인과 물질주의 및 탈물질주의 간에 나타난 상호작용 효과를 중심으로 시위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시기와 대상은 2016-17년 촛불집회 이후의 일반시위로 한정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첫째, 물질주의 및 탈물질주의 가치는 중간값 이상의 인식을 보였으며, 상대적으로 물질주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더 높았다. 둘째, 두 가지 가치는 전통적 요인과의 상호작용에 의해서만 시위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확인되었다. 물질주의는 상대적으로 높은 연령과 소득, 비투표활동, 낮은 정치·비정치 결사체 활동과, 참여·표현형 탈물질주의는 높은 연령과 비투표활동과, 그리고 권익옹호형 탈물질주의는 이념과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시위참여를 추동하였다. 셋째, 전통적 요인의 영향력은 여전히 강력하였다. 낮은 연령과 소득, 평상시 투표활동, 정치·비정치적 결사체 활동, 진보 이념은 시위참여를 촉진하였고, 이증 결사체 활동의 영향력이 가장 높았다.

주제어 | 시위참여, 물질주의, 탈물질주의, 정치적 관여, 이념

* 계명대학교 국제학연구소 연구교수

1. 문제제기

이 연구의 목적은 시위참여의 결정요인을 규명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전통적 요인, 즉 사회경제적 특성, 이념, 평상시 정치적 관여(political engagement)와 물질주의(materialism) 및 탈물질주의(post-materialism) 간에 나타난 상호작용 효과를 중심으로 시위참여를 추동하는 요인을 분석한다. 이러한 작업은 시위참여의 결정요인에 관한 이론적 및 경험적 논의를 수용하여 미시적인 차원에서 한국 시위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서 수행된다.

탈물질주의는 잉글하트(Inglehart 1971, 1990, 1997)가 1970년대 서구 사회에서 나타난 새로운 사회 균열을 설명하기 위해 제시한 개념이다. 탈물질주의는 2차 대전 이후 경제적 풍요와 안정적인 사회보장 제도 및 대규모 전쟁이 사라진 국제정세 속에서 기존의 물질적 욕구와 신체적 안정을 넘어서 인간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사고의 전환을 의미한다. 잉글하트는 서구 산업화된 민주주의 국가에서 유년기에 경험한 사회경제적 환경에 의해 탈물질주의의 가치관이 지속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개인들의 가치가 물질주의와 탈물질주의의 균열 속에서 점점 탈물질주의로 전환되는 상황을 조용한 혁명(silent revolution)으로 규정하였다.

잉글하트에 의해 촉발한 탈물질주의 논의는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후속 연구를 확산시켰다. 연구자들은 시간의 변화에 따른 물질주의 및 탈물질주의 인식을 추적하여 세대 간 가치변화를 검증하기도 하고(Knutson 1990), 경제적 환경과 문화적 특수성 및 복지제도의 구축 등에 의해 두 가지 가치관이 형성되는 배경을 규명하기도 했다(양해만·조영호 2018; Bomhoff and Gu 2012; Cho and Yoon 2015; Inglehart and Abramson 1994) 그리고 탈물질주의 가치가 정치적 신뢰와 정치참여 확산에 미친 정치적 효과와 관용과 같은 개인적 차원에서 시민의식의 증진에 미친 효과도 제시되었다(김명숙 2008; 어수영 2004).

그렇다면, 탈물질주의 가치가 시위참여를 추동하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 잉글하트와 그의 지지자들은 긍정적 답변을 제시한다(김욱·이이범 2006; 어수영

2004; Cho and Park 2019; Gibson and Duch 1994; Opp 1990; Welzel and Deutsch 2012). 즉 탈물질주의가 시위를 포함해 정치적 항의활동과 같은 비제도적 정치참여를 확산시킨다는 것이다. 이 연구 역시 기존의 연구결과에 동의하되, 양자의 관련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강조하고자 한다. 그 핵심은 물질주의 및 탈물질주의라는 인간의 가치가 시위라는 직접적 행동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일정한 계기가 필요하며, 탈물질주의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뚜렷이 관찰되는 물질주의 가치도 시위참여를 이끈다는 점을 환기하는 것이다.

잉글하트(Inglehart 1971, 1990, 1997)는 탈물질주의가 다양한 인지적 동원(cognitive mobilization)의 과정을 통해서 시위 등의 비관습적 정치참여에 영향을 미친다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즉 교육, 정치참여 방식, 이념 등의 특정한 계기를 통해서 탈물질주의 가치가 시위라는 구체적 혹은 직접적인 행동으로 발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탈물질주의 가치는 자원모델(resource model), 정치적 관여(political engagement)와 동원의 네트워크를 강조하는 시민자발성 모델(civic voluntarism)에서 시위참여에 영향을 미친다고 검증된 전통적 요인과 결합할 때 시위참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물론 기존 연구들은 탈물질주의와 함께 전통적 요인을 경쟁변수 혹은 통제변수로 채택하는 모형을 설정하고 있으나, 그 관심을 양자 간 상호작용의 맥락으로 확대하지는 않았다.

또한 기존 연구는 시위참여에 미친 탈물질주의의 영향에 집중한 결과로 물질주의와 시위참여의 관련성을 소홀히 다루었다. 2000년대 이후 한국 사회에서 물질주의 가치가 확산된다는 현실(양해만·조영호 2018)을 고려한다면, 물질주의 가치도 시위참여의 동기가 된다는 점을 경험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탈물질주의 측정변수 역시 잉글하트(Inglehart 1971, 1990)의 전통에 의존하는 경향성을 보여, 사회적 약자의 권리 옹호 등과 같이 최근의 현대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가치를 측정변수로 설정하지 못하는 한계도 발견된다.

따라서 이 연구는 물질주의 및 탈물질주의와 전통적으로 시위참여를 추동한다고 검증된 요인들 간에 나타난 상호작용의 맥락에서 시위참여의 결정요인을 분

석한다. 연구목적은 다음의 과정을 통해서 구체화된다. 첫째, 물질주의 및 탈물질주의 이외의 전통적 요인은 사회경제적 특성과 이념 및 평상시 정치적 관여(미디어 이용, 정치효능감, 신뢰, 정치참여 방식, 결사체 활동)로 구성하였다. 둘째, 탈물질주의 측정변수는 잉글하트가 고안한 변수 이외에 선행 연구(정병기 2017)에 기초하여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였다. 셋째, 분석시기와 대상은 촛불집회 이후의 일반 시위로 한정하였다.

물질주의 및 탈물질주의를 포함해 시위참여의 결정요인에 주목하는 이 연구는 한국 시위의 성격을 제시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2016-17년 촛불집회는 시민들이 시위를 자신들의 의사를 효과적 및 효율적으로 표출하는 방식으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고(도묘연 2017a), 2000년 이후 본격화된 시위의 일상화, 즉 사회운동이 관습정치的一部分가 되는 운동사회(Meyer and Tarrow 1998)를 심화시키는 전환점이 되었다. 그러나 촛불집회 이후 그의 맞불로 개최된 태극기 집회와 소위 조국 사태를 둘러싼 서초동 집회와 광화문 집회에서 나타났듯이, 시위는 이념적 갈등의 분출이라는 여전한 한계도 포착된다. 따라서 이 연구는 서구와 같이 시위의 일상화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시위에서 표출된 주요 이슈와 동기를 파악하여 그 일반성과 특수성을 제시한다는 의미가 있다.

II. 이론적 논의 및 기존 연구 검토

1. 물질 및 탈물질주의의 여러 차원

탈물질주의는 잉글하트(Inglehart 1971, 1977)가 1968년 이후 서구 산업 민주주의 국가의 사회 균열을 설명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도입한 개념이다. 그의 논의는 2차 대전 이후의 교육 수준의 향상, 급격한 경제성장과 사회복지 제도의 확충에 따른 물질적 풍요, 그리고 대규모의 전쟁이 사라진 국제정세에 따른 신체적

안전의 확대를 배경으로 등장하였다(정병기 2018, 203). 즉 서구 사회의 경우 전후의 사회경제적 안정화에 힘입어 개인적 차원에서 물질적 생존과 안정을 우선시하는 사고가 감소하고, 자기표현이나 삶의 질을 중시하는 탈물질주의 사회가 도래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사회는 물질주의와 탈물질주의라는 새로운 균열구조를 형성하게 된다.

익히 알려진 대로, 잉글하트와 그의 지지자들은 탈물질주의 가치로의 전환을 설명하기 위해서 희소성(scarcity) 가설과 사회화 가설을 제시한다(Inglehart and Abramson 1994; Knutsen 1990). 먼저 메슬로우(Maslow 1943)의 욕구단계론에 기초한 희소성 가설은 개인의 가치가 사회경제적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 핵심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욕구는 일정한 단계를 거치며, 생존에 가장 필수적인 생리적 및 안전의 욕구가 충족되어야만 더욱 높은 차원의 소속감 및 애정, 존중, 자아실현의 욕구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생리적 욕구는 배고픔이나 갈증 및 성적 욕구 등 인간의 본능적 욕구를, 그리고 안전의 욕구는 보안, 공포로부터의 보호, 혼동과 무질서로의 벗어남 등을 포함한다(김명숙 2008, 63). 따라서 개인은 장기간의 물질적 풍요와 경제성장으로 하위 차원의 두 가지 욕구가 확보되면 상위 차원의 가치를 추구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생존과 안정의 가치를 우선시하게 된다. 이 경우 만약 급격한 경제적 위기가 발생한다면, 개인은 필연적으로 물질적 생존과 신체적 안전의 가치를 선호하게 된다.

반면, 사회화 가설은 개인이 선호하는 가치의 우선순위가 사회화 과정에 의해서 형성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 핵심은 성장 과정의 학습에 의해 성인이 된 후에도 가치는 쉽게 변하지 않으며, 동일한 세대는 비슷한 사회경제적 조건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의 가치 역시 유사하다고 본다. 즉 경제적 결핍을 경험한 부모 세대와 달리 어린 시절에 경제적 풍요를 경험한 자녀들은 성인이 된 후에 부모와 달리 생존과 안전의 가치보다는 상위 차원의 욕구를 갖게 되며, 자녀 세대들의 가치는 비슷한 동시에 쉽게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메슬로우의 욕구단계론을 원용했던 가설에 의하면, 생리적 및 안전의 욕구를 중요시하는 사고는 물질주의로 정의된다. ‘국가의 질서유지’, ‘국방 강화’, ‘범죄와의 전쟁’, ‘물가 인상 억제’, ‘고도의 경제성장’, ‘안정적인 경제 유지’는 물질주의를 개념화하는 지표로 널리 수용되고 있다. 이러한 물질주의 가치의 충족 이후에 형성된 상위 차원의 욕구, 즉 소속감 및 애정, 존중, 자아실현의 욕구를 중요시하는 사고가 바로 탈물질주의이다. 잉글하트(Inglehart 1990)는 1970년부터 1988년까지 수집된 26개국의 방대한 시계열 조사 데이터를 사용하여 전쟁의 공포와 경제적 결핍을 경험한 성인 세대에서 2차 대전 이후 평화와 경제적 번영을 경험한 젊은 세대로의 세대교체에 의해 탈물질주의를 지향하는 문화적 변화가 진행되었다는 점을 증명했다. 그의 세대 간 가치변화 이론이 함의하듯이, 경제적 성장과 안정이 담보될 경우 젊은 세대는 기성세대보다 탈물질주의 가치를 더 선호하게 되며, 문화적 변화는 세대교체를 통해 달성될 수 있다.

경제적 및 신체적 안전을 우선시하는 물질주의 가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잉글하트의 논의를 수용한 연구자들에 의해서 일정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탈물질주의 가치는 다차원적인 성격을 가진다. 메슬로우의 욕구단계론을 따르면, 탈물질주의는 개인이 집단에 소속되어 타인과 사귀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동시에 서로 애정을 주고받기를 원하는 소속감, 자기 자신의 힘과 능력 및 자신감을 유지하는 존경, 그리고 인간이 자신의 잠재 능력을 개발하려는 자아실현을 포함한다(김명숙 2008, 63-64). 주목할 것은 탈물질주의 가치가 욕구라는 인간의 심리를 뛰어넘어 시대적 환경이 투영된 개념이라는 점이다. 이 경우 탈물질주의 논의를 촉발한 동시에 탈물질주의 세대가 주도했던 68혁명의 주장과 요구를 확인한다면, 탈물질주의 가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잉글하트의 논의를 수용하여 서구의 68혁명을 분석한 정병기(2017, 2018)는 탈물질주의가 당시 사회구조적 모순을 거부하는 다차원적인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는 68혁명 이후의 균열구조를 “인간의 일상에 주목하는 반권위주의적 탈물질주의와 경제적 가치를 중시하는 권위주의적 물질주의 갈등 구도”로 정의한다.

즉 68혁명 운동이 물질주의 가치에 대한 반발인 동시에 기성의 권위주의에 대한 반발이기도 했다는 것이다. 68혁명을 주도한 탈물질주의 세대의 주장이 대의 민주주의, 거대 기업과 자본주의 기술, 전문가에 의한 지배, 미디어에 의한 조종, 교수·교사 중심의 학교, 가부장적 가정 및 남성 중심 사회에 대한 비판이었다는 점을 환기하면서, 이러한 비판을 해방적 삶을 지향하는 반권위주의 사고로 규정했다. 특히 그는 전후의 경제적 풍요는 자본과 물질에도 권위가 부여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반권위주의 의식이 자본주의와 결합하면서 68운동 발생했다고 보았다. 당시 탈물질주의 세대의 요구는 경제적 자본주의 가치와 수동적 삶을 거부하고 일상의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탈물질주의 사람 사회를 지향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개인의 행동들을 근거 짓는 사고를 바로 탈물질주의로 지칭한 것이다.

이러한 논의에 기초하여 그는 탈물질주의를 반권위주의의 맥락에서 네 가지 차원으로 개념화했다. 그것은 국가 및 관료가 시민에게 행사하는 관료주의적 모순 비판(‘언론자유 보장’, ‘정부정책 결정에 대한 국민 참여확대’, ‘직장과 지역 사회에서의 개인 발언권 확대’), 인간이 자연에게 행사하는 문명론적 모순 비판(‘핵 감축 또는 폐지’, ‘환경보호’), 사회의 다수가 소수에게 행사하는 진화론적 모순 비판(‘장애인, 동성애자 등 사회적 소수자의 권익 신장’), 강대국이 약소국 혹은 식민지국에 행사하는 제국주의적 모순 비판(‘국제난민과 약소국 지원’), 가부장주의적 모순 비판(‘여성권익 신장’)이다. 그리고 이러한 반권위주의적 탈물질주의가 특정한 시기가 아니라 인간이라는 영장류의 사회에서 항상적으로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정병기(2017)의 논의는 탈물질주의를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따른 심리적 차원을 넘어서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극복하는 반권위주의와 결부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그의 탈물질주의 개념화는 기본적으로 잉글하트의 이론에 천착하고 있다. 관료주의적 모순의 비판으로 정의된 세 가지 탈물질주의 내용은 잉글하트의 전통을 따르는 연구자들에 의해서 지속해서 수용된 것이다. 문명론적 모순의 비판 중 ‘환경보호’와 진화론 및 가부장주의적 모순의 비판 내용

역시 잉글하트가 성평등, 이혼, 낙태, 동성애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 활용되었다 (Inglehart 1990). 다만 ‘핵 감축 또는 폐지’와 ‘국제난민과 약소국 지원’은 잉글하트가 주목하지 않았던 탈물질주의의 내용이다. 이러한 차이는 잉글하트의 탈물질주의 논의가 대규모의 전쟁이 사라진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른 신체적 안전이 확보된 상황을 배경으로 도입되었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2. 시위참여의 결정요인: 물질주의 및 탈물질주의와 전통적 요인

일반적으로 시위는 비관습적 정치참여(unconventional participation)의 한 유형으로 정의된다. 밀브레스와 고엘(Milbrath and Goel 1977)은 정치참여를 투표, 정당 및 선거활동, 공동활동, 사적 접촉, 의사소통의 관습적 정치참여와 항의활동의 비관습적 정치참여로 구분한다. 이 경우 시위는 청원서 서명, 공과급 납부 거부, 파업 및 점거 활동 등과 함께 정치적 항의(political protest)의 한 유형에 포함된다(류태건·차재권 2021). 정치참여를 “정부나 정치에 영향을 미치거나 지지를 보내기 위한 일반 유권자의 행동”으로 정의할 때(Milbrath and Goel 1977), 시위는 집합적인 정치적 저항행위이자 정부와 시민이 서로 상충되는 이해를 기반으로 공공의 상호작용을 벌이는 쟁투적 정치(contentious politics)의 성격을 가진다(Tarrow and Tilly 2007). 또한 합리적 선택의 관점에서 시위와 같은 정치적 항의는 투표와 달리 참여자의 자발성과 비용이 상당히 요구된다. 따라서 투표는 ‘쉬운 참여’로, 반면 시위를 포함한 정치적 항의는 ‘어려운 참여’로 정의되기도 한다(김욱 2010).

개인의 탈물질주의 가치가 시위참여를 추동하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 잉글하트(Inglehart 1990, 361-362)는 긍정적으로 대답한다. 그 배경으로 서구 사회에서 탈물질주의 가치가 등장했더라도 여전히 물질주의 목표가 지배적인 상황에서 탈물질주의자들의 경우 기존 사회에 불만족할 가능성이 크고, 시위에 따른 혼란에서 감수해야하는 손해가 적다는 점을 제시했다. 국내외적으로 잉글하트의 이

론을 수용한 연구는 탈물질주의와 정치적 항의 혹은 시위참여 간의 친화성을 증명해왔다(김욱 2010; 류태건·차재권 2021; 어수영 2004; 조기숙 박혜윤 2008; Cho and Park 2019; Gibson and Duch 1994; Opp 1990; Welzel and Deutsch 2012). 단 국내에서 세계가치조사를 활용하여 탈물질주의 연구를 본격화한 어수영(2004)의 논의에 기초한 연구에서는 탈물질주의 가치가 시위참여를 이끄는 요인으로 검증되지 않았다(김명숙 2008).

국내에서 탈물질주의와 시위참여 간의 친화성을 검증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김욱(2010)과 조기숙과 박혜윤(2008, 2019)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일반시위뿐만 아니라 촛불집회 참여에 미친 탈물질주의의 영향을 분석하여 한국 시위의 성격과 특성을 제시하였다. 조기숙과 박혜윤(2008)은 2008년 촛불집회 참여자들이 일반 시민들에 비해 교육 수준과 탈물질주의 의식이 높았다는 점을 확인하여 촛불집회를 소고기 먹거리의 안정성을 강조하는 탈물질주의적 참여자와 값싼 소고기 수입을 주도한 정부 간의 문화적 균열이 반영된 사건으로 규정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이갑윤(2010)은 이념, 세대, 지역이 촛불집회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2008년 촛불집회가 문화적 균열보다는 정치적 균열이 투영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욱(2010)은 이갑윤의 연구가 물질 및 탈물질주의 변수가 포함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교육 수준, 정치적 이념, 물질주의 및 탈물질주의를 포함한 실증연구를 통해 탈물질주의 가치가 촛불집회에 참여에 미친 영향을 제시함으로써 조기숙과 박혜윤(2008)의 연구를 지지하였다. 다만, 그는 물질주의 및 탈물질주의 균열이 기존의 정치적 균열을 완전히 대체하지는 못하고, 양자의 균열이 상호 공존한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조기숙과 박혜윤(Cho and Park 2019)은 세계가치조사를 활용한 후속 연구를 통해 다시금 한국의 시위참여에 미친 탈물질주의의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그들은 사회경제적 변수, 급진적 불만(disaffected radicalism), 사회적 자본, 이념이 포함된 모형을 설정하여 2005년 및 2010년 시위참여에서 이념과 신뢰와 달리 탈물질주의의 가치는 지속적인 영향력을 가진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김욱·이

범(2006) 역시 2000년-2001년의 세계가치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탈물질주의 가치를 가진 유권자일수록 시위를 포함한 정치적 항의에 가담할 확률이 높다는 점을 규명하였다.

이처럼 탈물질주의 가치가 시위참여를 추동한다는 실증적 분석이 확산하였으나, 시위참여를 이끄는 요인은 전통적인 모델이 일찍이 주목을 받아왔다. 자원동원론, 정치적 관여와 네트워크 동원으로 대변되는 시민자발성 모델, 그리고 사회자본론을 수용한 연구들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정치적 정향은 국내외 연구자들에 의해서 시위참여를 추동하는 핵심적 요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이들 논의를 종합하면, 시위참여의 전통적 요인은 사회경제적 특성, 정치적 관여, 이념의 차원으로 재구분할 수 있다.

먼저, 사회경제적 특성은 전통적으로 시위참여를 추동하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자원동원모델에서는 개인이 시위참여 과정에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나 위험이 없는 정도를 나타내는 사적 가용성(biological availability), 즉 연령, 교육, 자녀 유무, 가족 소득, 학생 지위 및 고용 상태 등을 강조한다(Schussman and Soule 2005, 1088). 한국의 경우 높은 수준의 소득과 교육은 시위참여를 추동하는 주요 요인으로 도출하고 있으며(이혜인·홍준형 2013), 서구의 경우도 시위는 정치적 자원이 상대적으로 많은 중상위 계층의 사람들이 주도하는 경향성을 가진다(Norris et al. 2005; Rucht 2007).

다음으로 평상시 정치적 관여로 정의되는 변수는 시위참여를 추동하는 핵심적 요인으로 주목받아 왔다. 또한 이들 요인은 투표 및 비투표활동, 외적 및 내적 효능감, 정치 및 비정치 결사체 활동, 제도 및 사회 신뢰, 전통 및 뉴미디어 이용별로 시위참여에 구별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검증되었다.

첫째, 정치적 효능감, 즉 정치에 효과적으로 참여하고 정치를 이해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정의되는 내적 효능감과 시민의 요구에 대한 정부의 반응성을 대변하는 외적 효능감은 오랫동안 시위참여의 주요한 요인으로 증명되었다. 이 경우 내적 효능감이 높은 대신 외적 효능감이 낮은 사람들이 캠페인이나 시위참

여에 적극적이기도 하지만(Pollock 1983), 외적 효능감 역시 시위참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홍혜승·류은영 2015). 둘째, 정당·노동조합·시민단체의 정치 결사체와 친목모임·종교조직·취미동호회 등의 비정치 결사체 활동은 시위참여를 촉진하는 핵심적 요인이다. 한편에서는 정치 결사체 활동이 시위참여를 추동한다는 연구도 확인되지만(도묘연 2021; Norris et al 2005), 다른 한편에서는 비정치 결사체 활동이 시위참여를 이끈다는 연구들도 발표되었다(김상돈·김태준 2008). 셋째, 신뢰, 즉 정부·국회·정당 등에 대한 공적 신뢰와 일반인에 대한 사회 신뢰도 시위참여를 이끄는 주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다. 기존 연구는 주로 공적 신뢰가 시위참여에 미친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규명해 왔다. 정부에 대한 낮은 신뢰가 시위참여를 촉진하기도 하지만(송경재 2013), 정치인에 대한 높은 신뢰가 시위나 집회를 포함한 광고 불매운동 등의 저항적 정치참여 활동을 증진하기도 한다(이정기 2011). 넷째, 미디어 이용 역시 시위참여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검증되고 있다. 전통적인 미디어인 TV 시청시간은 투표활동과 비제도적 정치참여를 줄이거나 혹은 촉진하는 요인 중의 하나이며(성동규 외 2007; Putnam 1995), 특히 온라인 정치토론 및 글쓰기 활동, 정치인과의 SNS 활동, 인터넷 기반 1인 미디어의 이용은 전통적인 미디어보다 시위참여를 더 촉진하며(이정기 2011; 이정기·정대철 2009) SNS 이용 빈도 역시 시위참여를 추동하는 요인이었다(박영득·이재묵 2017). 다섯째, 평상시 정치참여 활동도 시위참여를 이끄는 요인이다. 평상시 다양한 투표 및 비투표활동이 시위참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도묘연 2021)도 있지만, 다양한 정치참여 활동은 그만큼 정치적 관심을 높이기 때문에 시위참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가진다(차현진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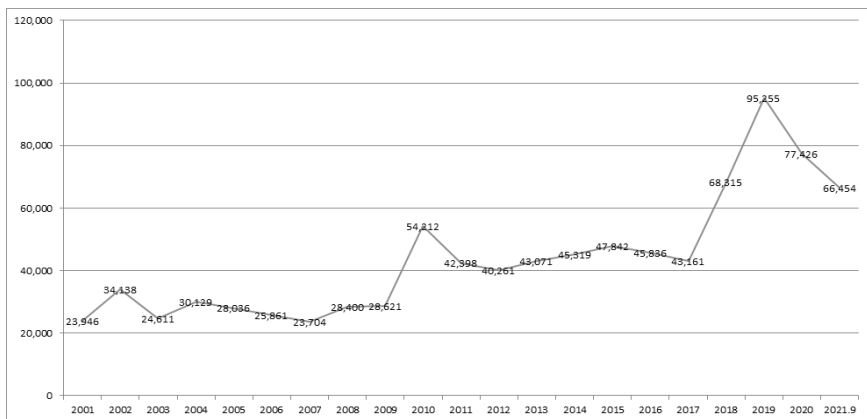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이념 역시 시위참여를 추동하는 주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다. 이념적 균열구조가 뚜렷한 한국의 경우 시위참여에 미친 이념의 영향력은 지대하다. 이념은 위에서 제시한 다양한 요인들과 경쟁변수 혹은 통제변수로 통상적으로 설정되며, 실제로 다른 요인들에 비해 시위참여 혹은 그 의사 형성에 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도묘연 2021). 물론 국외 연구에서도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모두 좌파 혹은 진보적 이념은 시위와 같은 직접적 행동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검증되었다(Welzel and Deutsch 2012).

3. 한국의 물질주의 및 탈물질주의와 시위참여의 고려사항

한국 사회에서도 시위가 관습정치的一部分이 되는 운동사회(Meyer and Tarrow 1998)의 심화가 포착되고 있다. 2000년 이후부터 시위의 일상화가 진행되기 시작했다라는 평가가 발표되는 가운데, 2016-17년 촛불집회는 그 흐름을 더욱 가속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촛불집회는 시민들이 시위를 자신들의 의사를 효과적 및 효율적으로 표출하는 수단이라고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고(도묘연 2017a), 이러한 인식을 반영하듯 촛불집회 이후 시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림 1]에서 확인되듯이, 2020년 2월 발생한 코로나 19 이후로 감소하였던 시위는 2021년 들어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됨에도 다시 증가하고 있었다. 이는 한국도 서구처럼 시위가 일상화되었다는 하나의 지표로 볼 수 있다.

〈그림 1〉 2000년 이후 한국 시위 현황(단위: 건)



자료: 『2019년 경찰통계연보』 및 『치안전망 2022』 기초로 재구성

시위의 일상화 혹은 그 심화는 한국 시위의 일반성과 특수성을 규명하는 새로운 연구 과제를 던져 주고 있다. 이 지점에서 이 연구는 물질주의 및 탈물질주의 가치에 주목한다. 기본적으로 탈물질주의 가치가 문화변동 및 정치참여 행태의 변화를 이끌고, 나아가 시위참여를 추동했다는 기존 논의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그럼에도 탈물질주의와 시위참여의 친화성에 대한 논의에 일정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그 핵심은 가치가 시위라는 직접적 행동을 이어지기 위해서는 일정한 계기가 필요하며, 물질주의 가치가 증가하는 한국적 현실과 연구방법에 대한 재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첫째, 기존 연구는 탈물질주의와 전통적으로 시위참여에 영향을 미친다고 검증된 변수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고민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사실 개인의 주관적인 가치가 직접적으로 시위와 같은 정치적 행동을 이끈다는 주장은 일정 정도 논리적인 한계가 있다. 일반적으로 정치문화를 구성하는 요소는 가치, 신념, 태도로 구성되며, 세 가지 개념은 상호 연결되어 있다. 이 중 특정 개인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기본적인 시각인 가치는 구체적인 대상이나 문제에 대한 개인의 견해나 믿음으로서 신념을 형성하게 하고, 이러한 신념과 가치는 태도나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김육·이이범 2006, 92; Rokeach 1968).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가치는 태도와 결부되어야만 정치적 행동으로 발현될 수 있다는 논리가 더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차현진 2021, 31). 나아가 가치는 태도뿐만 아니라 평상시 정치적 행태와 결부될 때 정치적 행동을 이끌 수 있다. 예를 들어 탈물질주의 가치를 가졌다고 해서 무조건 시위에 참여하기보다는 탈물질주의 가치를 가진 동시에 기성 정치인에 대한 신뢰가 낮거나 혹은 평상시 정치참여에 적극적인 사람들이 시위에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 즉 탈물질주의 가치는 이념이나 평상시 정치적 지식, 정치적 신뢰, 정치참여와 같은 정치적 관여(Norris 2001)와 결합할 때 시위참여를 이끈다는 논리가 더 타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잉글하트 역시 탈물질주의 가치가 인지적 동원을 통해서 시위 등의 정치적 행태에 영향을 미친다는 입장을 밝혔다(1970, 1990, 1977). 한 개인이 정치공동체

를 다루는 기술의 습득을 의미하는 인지적 동원은 현대사회에서 교육뿐만 아니라 다양한 미디어 이용을 통해 정치적 관심을 확대함으로써 증가할 수 있으며, 정치적 관심은 제도에 대한 신뢰, 정치효능감, 평상시 활발한 정치참여 및 결사체 활동 등에 의해서 고양될 수 있다. 물론 기존 연구들도 사회경제적 요인과 정치적 관여 변수를 탈물질주의의 경쟁변수 혹은 통제변수로 설정하여 시위참여의 영향을 규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요인과 탈물질주의 간의 상호작용까지 그 관심을 확장하지는 않았다.

둘째, 국내 연구는 탈물질주의와 시위참여의 친화성에 몰두한 결과로 상대적으로 물질주의와 시위참여의 관련성을 소홀히 다루었다. 1960년대의 경제적 풍요와 사회복지의 확충을 기반으로 탈물질주의가 확산하였던 시대와 현시대의 상황은 분명 차이가 있다. 21세기 들어 전세계적인 신자유주의의 확산은 새로운 경제위기와 함께 사회적 양극화의 심화로 이어졌고, 기술 진보와 생산성 증가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은 탈물질주의보다는 물질주의를 다시 갈구하는 시대로 접어들게 하였다(정병기 2018, 202-203). 물론 한국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1990년부터 2010년까지의 세계가치조사 자료를 활용한 양해만·조영호(2018)의 연구에 의하면, 한국의 경우 2000년 이후부터 물질주의와 탈물질주의 가치의 동반하락이 뚜렷하게 관찰되지만, IMF 경제위기와 신자유주의 개혁으로 인한 실업률과 비정규문제의 가속화라는 객관적인 경제적 지표의 악화와 그에 따른 불안감이 물질주의 가치를 지속시키는 이유가 되었다. 잉글하트의 희소성 가설과 사회화 가설에 따르더라도, IMF 경제위기와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경제위기 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과 그 시대에 성장기를 겪은 세대들은 물질주의 가치를 지속해서 가지게 될 확률이 높다. 그 결과 이들의 시위참여 동기는 자신들이 처한 물질적 어려움의 수호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더하여 물질주의와 시위참여의 관련성은 경험적 연구를 통해서도 일정 부분 확인된다. 2016-17년 촛불집회를 사례로 한 연구에서는 국가사회 질서의 유지, 범죄 소탕, 물가상승 억제에 대한 인식에서 참여자와 비참여자 간에 차이가 없었다(정병기 2017). 이는 시위참여

자와 비참여자 모두 물질주의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셋째, 탈물질주의 가치의 주요 내용은 잉글하트(Ingelhart 1971, 1990)의 전통을 따르기 때문에 탈물질주의의 새로운 내용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탈물질주의의 측정변수는 잉글하트의 초기 및 후속 저작에서 소개된 항목과 조사방법이 세계가치조사의 표본으로 정착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응답자들에게 물질주의 항목과 탈물질주의 항목을 제시하고, 이중 중요도에 따라 1순위와 2순위를 선택하게 한 후 연구자가 고유의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탈물질주의 지수를 설정하거나 혹은 물질주의, 탈물질주의, 그 혼합형으로 유형화한다. 이중 탈물질주의 항목은 ‘직장과 사회에의 참여확대’, ‘도시나 농촌의 환경미화’, ‘정부 정책결정에 국민참여확대’, ‘언론자유 보장’, ‘보다 인간적인 사회로의 발전’, ‘돈보다 아이디어가 중시되는 사회로의 발전’이 포함되며, 다수의 연구자들이 차용하고 있다.

이들 목록은 주기적으로 수행된 세계가치조사에 활용되어 물질주의 및 탈물질주의 가치의 통시적인 변화를 분석하는데 탁월하다. 그러나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현대 사회에서 탈물질주의로 불릴 수 있는 또 다른 측정문항을 설정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다. 즉 탈물질주의가 경제적 및 신체적 안정을 뛰어넘는 인간적 가치를 중시하는 가치라면, 고착화된 자기표현, 삶의 질, 소속감 확대와 함께 최근의 현대사회가 직면한 사회적 약자의 이익 옹호, 여성권익 신장, 국제난민과 약소국 지원 등에 대한 인식(정병기 2017)도 탈물질주의 가치의 주요한 내용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상의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이 연구는 본격적으로 물질주의 및 탈물질주의와 전통적 요인과의 상호작용의 관점에서 시위참여의 요인을 추론한다. 이 과정은 잉글하트(Ingelhart 1990)와 정병기(2017)의 논의를 참고하여 탈물질주의 가치의 측정변수를 새롭게 제시하는 작업에서 출발한다.

3. 연구설계

1.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연구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료수집은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여론조사기관(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2020년 4월 20일부터 28일 사이에 설문조사가 이루어졌고, 표본은 성별, 나이, 지역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기초한 비례층화 방식으로 추출되었다.

자료수집과 분석대상의 선정은 다음의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진행하였다. 첫째, 시위참여는 촛불집회와는 구별되는 일반 시위참여를 묻는 별도의 설문문항을 제시하였다. 이는 촛불집회의 영향을 차단하여 일반 시위참여에 미친 전통적 요인과 물질주의 및 탈물질주의의 영향을 추론하기 위한 설정이었다. 둘째, 분석대상은 시위참여자 및 비참여자로 한정하였다. 실제 동 자료의 설문대상은 1,683명이었고, 시위참여 문항은 참가한 경우, 의사는 있었으나 여건상 참여하지 못한 경우, 그리고 참가하지 않은 경우로 세분되어 있었다. 그러나 시위참여 횟수를 종속변수로 한 분석모형을 설정하기 위해 시위참여자과 비참여자만을 분석대상으로 확정하였다. 최종 분석대상은 1,175명이었다.¹⁾

한편, 전통적 요인, 물질주의 및 탈물질주의, 그리고 양자의 상호작용이 시위참여에 미치는 영향력을 추정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유의수준 0.05에서 수행하였다. 그리고 물질주의 및 탈물질주의 구성변수에 대한 타당성 검증은 배리맥스(varimax)에 의한 탐색적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의 과정을 거쳤다. 그 외 시위참여 집단 및 비참가 집단별로 나타난 분석변수의 일반특성과 유의미한 차이

1) 분석대상 1,175명의 지역별 분포는 서울 221명(18.8%), 부산 84명(7.2%), 대구 65명(5.5%), 인천 67명(5.7%), 광주 39명(3.3%), 대전 35명(3.0%), 울산 31명(2.6%), 경기 283명(24.1%), 강원 38명(3.2%), 충북 34명(2.9%), 충남 42명(3.6%), 전북 43명(3.7%), 전남 38명(3.2%), 경북 53명(4.5%), 경남 71명(6.0%), 제주 18명(1.5%), 세종 13명(1.1)이었다. 성별 및 연령별 분포는 <표 3>을 참조한다.

는 분산분석(Duncan 검증 병행)과 χ^2 -test를 통해 검증하여 제시하였다.

2. 물질주의 및 탈물질주의 유형화: 구성변수의 타당성 검증

분석모형을 설정하기 이전에 물질주의 및 탈물질주의를 구성하는 측정변수의 타당성을 검증하여 유형화하였다. 2장의 논의에서 확인했듯이, 기존 연구는 잉글하트의 방식을 원용하여 측정문항을 제시한 후, 응답자의 선택지를 기준으로 두 가지 가치를 유형화하거나 혹은 일정한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탈물질주의 지수를 고안하고 있다.

사실 두 가지 가치는 이분법적 구분이 아니라 연속선상에서 정도의 차이를 의미하며, 물질주의자 혹은 탈물질주의자로 불리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한쪽의 가치를 더 중요시하는 사람 혹은 경제적 가치를 넘어서 다양한 추상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로 볼 수 있다(김욱 2010, 39-40). 이 경우 개인이 소유한 가치는 공통적 혹은 차별적인 내용으로 구성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성평등과 사회적 약자의 보호 및 자아실현의 가치는 공통으로 탈물질주의로 불릴 수는 있으나, 탈물질주의 내에서도 다른 차원의 속성으로 분리될 수 있다. 따라서 기존 연구가 물질주의 및 탈물질주의 가치의 소유 여부를 중심으로 유형화했다면, 이에 더하여 이 연구는 두 가치의 구체적 내용을 기준으로 유형화를 시도한다.

물질주의 및 탈물질주의의 유형화는 기존 연구에서 활용된 측정목록을 확장한 후(정병기 2017; Inglehart 1990), 개념적 타당성을 확정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의 과정을 거쳤다. 개별 측정변수의 요인분석 결과에 의하면, 물질주의는 1개 차원에서, 그리고 탈물질주의는 2개 차원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요인분석에서 도출된 측정변수의 공통적 내용을 중심으로 요인 1은 참여·표현형 탈물질주의, 요인 2는 권익옹호형 탈물질주의, 그리고 요인 3은 물질주의로 명명하여 분석모형을 구축하기로 하였다. 구체적인 요인분석 결과는 <표 1>과 같다.²⁾

2) 당초 측정목록에 포함되었던 “사회복지 확대” 및 “물가상승 억제”(물질주의)와 “환경

<표 1> 물질주의 및 탈물질주의 가치의 구성변수: 요인분석 결과

구분		요인 1	요인 2	요인 3	
탈물질주의	참여·표현형	정부의 정책결정에 대한 국민참여 확대	0.75	0.13	0.27
		직장과 지역사회에서의 개인의 발언권 확대	0.74	0.19	0.14
		돈보다는 아이디어가 중요시되는 사회로의 발전	0.65	0.28	0.24
		언론자유 보장	0.56	0.07	0.39
	권익옹호형	국제난민과 약소국 지원	0.12	0.83	0.06
		핵 감축 혹은 폐지	-0.04	0.78	0.31
		장애인, 동성애자 등 사회적 소수자의 권익 증진	0.36	0.67	-0.12
	여성권익 신장	0.42	0.64	-0.06	
물질주의	국방비 등 방위력 증강	0.12	0.05	0.79	
	경제성장 달성과 경제안정	0.34	-0.01	0.78	
	국가 및 사회 질서유지와 각종 범죄 소탕	0.48	0.14	0.60	
모형 적합성	고웃값	4.2552	1.7544	0.8642	
	기여율	0.3868	0.1595	0.0786	
	누적 기여율	0.3868	0.5463	0.6249	

* 7단계 리커트 척도 측정(국가 발전의 중요한 목표로 1=매우 동의하지 않음, 4=보통, 7=매우 동의함).

3. 분석모형

<표 1>의 요인분석의 결과에 기초하여 전통적 요인, 물질주의 및 탈물질주의, 그리고 양자의 상호작용이 시위참여에 미친 영향을 추론하는 분석모형을 확정하였다. 종속변수인 시위참여는 참여 횟수로 측정하였다. 그리고 독립변수 중 전통적 요인은 성별, 연령, 학력, 소득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미디어 이용, 정치참여활동, 신뢰, 정치효능감, 결사체 활동의 정치적 관여, 그리고 이념으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인 분석모형은 다음과 같다.

보호”(탈물질주의)는 특정 요인으로 도출되지 않았다.

[기본모형]

$$y_{m_j} = \alpha + \sum_{i=1}^{11} (\beta_i * x_i) + \sum_{j=1}^3 (\delta_j * m_j)$$

[물질주의 및 탈물질주의 상호작용 검증 모형]

$$y_{m_j} = \alpha + \sum_{i=1}^{11} (\beta_i * x_i) + \sum_{j=1}^3 (\delta_j * m_j) + \sum_{k=1}^{11} \gamma_{k*} \sum_{i=1}^{11} x_i * m_j$$

y_{m_j} 는 j 시위참여 횟수(1=물질주의 시위참여 횟수, 2=참여·표현형 탈물질주의 시위참여 횟수, 3=권익옹호형 탈물질주의 시위참여 횟수)

α 는 상수항

β_i 는 독립변수군의 i 번째 추정계수

x_i 는 독립변수군의 i 번째 변수(1=성별, 2=연령, 3=학력, 4=소득, 5=이념, 6=진통미디어 지향도, 7=투표활동 지향도, 8=공적신뢰 지향도, 9=외적효능감 지향도, 10=정치·비정치 결사체 가입, 11=비정치적 결사체 가입, 12=물질주의, 13=참여·표현형 탈물질주의, 14=권익옹호형 탈물질주의)

δ_j 는 물질주의 및 탈물질주의 변수군의 j 번째 추정계수

m_j 는 물질주의 및 탈물질주의 변수군의 j 번째 변수(1=물질주의, 2=참여·표현형 탈물질주의, 3=권익옹호형 탈물질주의)

γ_k 는 독립변수군과 j 물질주의 및 탈물질주의 변수군의 k 번째 추정계수

$x_i * m_j$ 는 독립변수군의 i 번째 변수와 j 물질주의 및 탈물질주의 변수의 상호작용 변수

위의 분석모형에서 확인되듯이, 실제 분석은 물질주의 및 탈물질주의 간의 상호작용을 전제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된다. [모형 1]은 전통적 요인과 물질주의 및 탈물질주의의 상호작용이 전제되지 않은 경우에 시위참여에 영

향을 미친 변수를 추론하는 기본모형이다. 반면 [모형 2]와 [모형 3] 및 [모형 4]는 각각 전통적 요인과 물질주의, 참여·표현형 탈물질주의, 그리고 권익옹호형 탈물질주의 간의 상호작용을 상정한 모형이다.

그리고 독립변수 중 정치적 관여의 일부 변수는 개념화하여 구성하였다. 즉 전통미디어 이용도, 투표활동 지향도, 공적신뢰 지향도, 외적효능감 지향도로 조작화하였다. 이러한 설정은 전통 및 뉴미디어, 투표 및 비투표 활동, 공적 및 사적 신뢰, 내적 및 외적 효능감으로 구분된 유형에 따라 시위참여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2장의 논의에 기초하였다. 또한 분석모형 상의 문제, 즉 투표활동과 비투표활동을 함께 모형에 포함할 때 발생하는 자기상관성 문제를 제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한편, 결사체 활동은 정치·비정치 결사체 활동과 비정치 결사체 활동으로 유형화했다. 이는 총 분석대상 1,175명 중 정당(97명 8.3%), 노동조합(102명 8.7%), 시민단체(83명, 7.1%) 가입자 수가 너무 적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택이었다. 구체적인 분석변수의 내용과 측정방식은 <표 2>와 같다.

<표 2> 분석변수의 정의 및 측정

구분	변수명	측정변수	척도	
종속 변수	시위참여	시위참여 횟수	비율	
독립 변수	물질주의/ 참여·표현형 탈물질주의 권익옹호형 탈물질주의	<표 1> 요인분석 결과	리커트 (7)	
	이념	주관적 이념 평가(1진보, 6중도, 11보수)	리커트 (11)	
	전통적 요인	성별	남(1)/여(0)	명목
		연령	18세-19세,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학력	초졸, 중졸, 고졸, 전문대재/졸, 4년대재/졸, 대학원 석사재/졸, 대학원 박사재/졸	
소득		100만원이하-1,000만원 이상 11개 구간		

독립 변수	전통적 요인	평상시 정치 관여	전통·뉴미디어 이용 (전통미디어 지향도)	정치적 정보를 얻기 위한 미디어 이용 시간(분) $\frac{TV\text{ 및 종이신문 이용시간}}{(\text{인터넷} \cdot \text{소셜미디어} \cdot \text{모바일메신저 이용시간})}$	비율
			투표·비투표 활동 (투표활동 지향도)	투표 및 온라인 및 오프라인 정치문제 토론, 온라인 오프라인 정치·시사모임 참여, 청원 참여, 정부 기관 대상의 민원제기 정도 $\frac{\text{투표활동 수준}}{(\text{비투표활동 수준})}$	
			공적 및 사적 신뢰 (공적신뢰 지향도)	“대부분 공직자와 정치인은 신뢰할만함”, “우리 사회는 법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임” $\frac{\text{제도 신뢰 수준}}{(\text{사회 신뢰 수준})}$	리커트 (11)
			외적·내적 효능감 (외적효능감 지향도)	“정치인들은 나 같은 사람의 생각에 관심 없음”, “나 같은 사람이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 뭐라고 얘기해 봤자 소용이 없음” $\frac{\text{외적 효능감 수준}}{(\text{내적 효능감 수준})}$	
			정치·비정치 결사체 활동	정당·노동조합·시민사회단체 가입(1)/(0) 취미동호회·친목모임·향우회·동창회·종친회가입(1) /비가입(0)	명목

IV. 실증분석

1. 시위참여 및 비참여 집단의 일반특성

<표 3>은 시위참여 집단과 비참여 집단별로 나타난 분석변수의 일반특성을 보여준다. 전체 1,175명 중 시위참여자는 352명(29.96%), 비참여자는 823명(70.04%)이었다.³⁾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분석변수를 중심으로 그 특성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3) 시위참여 횟수별 참여 인원은 다음과 같다. 1회 114명, 2회 100명, 3회 60명, 4회 15명, 5회 32명, 6회 4명, 7회 2명, 8회 1명, 10회 12명, 11회 1명, 12회 2명, 15회 3명, 20회 3명, 25회·50회·99회 각각 1명이다.

첫째, 전체적으로 물질주의 가치(5.55)에 대한 인식이 참여·표현형 탈물질주의(5.14) 및 권익옹호형 탈물질주의(4.53) 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시위참여 및 비참여 집단 간 통계적 유의한 차이는 참여·표현형 탈물질주의(참여 5.22, 비참여 5.10)에서만 확인되었다. 즉 국가 및 지역사회에서의 참여와 자기실현 및 표현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시위에 많이 참여했다는 것이다.

둘째, 이념의 경우는 참여집단(5.12)이 비참여집단(5.79)에 비해 진보적 성향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의 시위는 여전히 이념적으로 진보적인 사람들이 많이 참여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셋째, 사회경제적 변수는 연령을 제외한 다른 변수는 두 집단 간에 뚜렷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연령의 경우 18세-19세(참 4.3%, 비 1.8%)·20대(참 19.9%, 비 14.8%)·40대(참 26.4%, 비 20.9%)는 참여율이 높았고, 30대(참 17.9%, 비 18.1%)·50대(참 19.9%, 비 23.9%)·60대 이상(참 11.7%, 비 20.4)은 비참여율이 높았다. 학력은 초졸(참 0.0%, 비 0.1%)·중졸(참 1.1%, 비 2.1%)·고졸(참 12.8%, 비 21.5%)·전문대재/졸(참 12.5%, 비 15.8%)의 경우 비참여율이, 4년대재/졸(참 60.5%, 비 50.9%)·대학원석사재/졸(참 9.1% 비 7.1%)·대학원박사재/졸(참 4.0%, 비 2.6%)은 참여율이 높았다. 따라서 시위참여자는 비참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20대의 젊은층과 40대, 그리고 4년제 대학교 이상의 고학력자가 많았다.

넷째, 평상시 정치적 관여는 미디어 이용, 정치참여 활동, 신뢰, 결사체 활동에서 참여집단과 비참여집단 간 차이가 있었다. 전통미디어 지향도(참 46.73, 비참 52.52)와 투표활동 지향도(참 2.05, 비 2.87)는 비참여 집단에서 높았던 반면, 공적 신뢰 지향도(참 0.97, 비 0.89)는 참여집단에서 높았다. 그리고 정치·비정치 결사체 활동(참 36.4%, 비 9.1%)은 참여집단에서 많았던 반면, 비정치 결사체 활동(참 42.9%, 비 59.4%)과 결사체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참 20.7%, 비 31.4%)는 비참여집단에서 많았다. 따라서 시위참여자는 비참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치적 정보를 얻기 위해 뉴미디어를 많이 활용하는 동시에 평상시 투표 이외에 정치토론과 민원제기 등과 같이 비투표활동에 적극적인 사람들이며, 정당·노동조합·시민단체와 취미동호회 등 다양한 결사체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사람들이었다.

〈표 3〉 시위참여 및 비참여 집단의 일반특성

(단위: 명, %)

		전체 (n=1,175)	참여 (n=352)	비참여 (n=823)	$\chi^2/F(\text{prob.})$		
물질주의 탈물질주의	물질주의	5.55	5.58	5.54	0.56(0.4547)		
	참여·표현형 탈물질주의	5.14	5.22	5.10	4.51(0.0339)		
	권익옹호형 탈물질주의	4.53	4.60	4.49	2.81(0.0941)		
이념		5.59	5.12	5.79	24.99(0.0001)		
전통적 요인	성별	남	585(49.8)	189(53.7)	396(48.1)	$\chi^2=3.0669$, df=1, prob=0.0799	
		여	590(50.2)	163(46.3)	427(51.9)		
	연령	18세-19세	30(2.6)	15(4.3)	15(1.8)	$\chi^2=25.3786$, df=5, prob=0.0001	
		20세-29세	192(16.3)	70(19.9)	122(14.8)		
		30세-39세	212(18.0)	63(17.9)	149(18.1)		
		40세-49세	265(22.6)	93(26.4)	172(20.9)		
		50세-59세	267(22.7)	70(19.9)	197(23.9)		
	60세이상	209(17.8)	41(11.7)	168(20.4)			
	학력	초졸	1(0.1)	0(0.0)	1(0.1)	$\chi^2=20.6068$, df=6, prob=0.0022	
		중졸	21(1.8)	4(1.1)	17(2.1)		
		고졸	222(18.9)	45(12.8)	177(21.5)		
		전문대재/졸	174(14.8)	44(12.5)	130(15.8)		
		4년대재/졸	632(53.8)	213(60.5)	419(50.9)		
		대학원석사재/졸	90(7.7)	32(9.1)	58(7.1)		
	대학원박사재/졸	35(3.0)	14(4.0)	21(2.6)			
	사회 경제적 특성	소득	100만원 미만	63(5.4)	6(1.7)	57(6.9)	$\chi^2=39.8300$, df=10, prob=0.0.0001
			100-199만원	90(7.7)	19(5.4)	71(8.6)	
			200-299만원	196(16.7)	57(16.2)	139(16.9)	
			300-399만원	194(16.5)	50(14.2)	144(17.5)	
			400-499만원	173(14.7)	52(14.8)	121(14.7)	
500-599만원			145(12.3)	61(17.3)	84(10.2)		
600-699만원			98(8.3)	32(9.1)	66(8.0)		
700-799만원			88(7.5)	23(6.5)	65(7.9)		
800-899만원			49(4.2)	16(4.6)	33(4.0)		
900-999만원	19(1.6)	11(3.1)	8(1.0)				
1,000만원이상	60(5.1)	25(7.1)	35(4.3)				
평상시 정치적 관여	전통미디어 지향도	50.79	46.73	52.52	12.89(0.0003)		
	투표활동 지향도	2.63	2.05	2.87	77.18(0.0001)		
	공적신뢰 지향도	0.91	0.97	0.89	4.60(0.0322)		
	외적효능감 지향도	2.42	2.38	2.43	0.33(0.5680)		
	정치·비정치 결사체활동	203(17.3)	128(36.4)	75(9.1)	$\chi^2=128.341$, df=2, prob=0.0001		
	비정치 결사체활동	641(54.6)	151(42.9)	490(59.5)			
무		331(28.2)	73(20.7)	258(31.4)			

2. 시위참여의 결정요인

<표 4>는 시위참여에 미친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이다. [모형 1]은 전통적 요인과 물질주의 및 탈물질주의의 순수한 영향력을, 그리고 [모형 2]와 [모형 3] 및 [모형 4]는 각각 전통적 요인과 물질주의, 참여·표현형 탈물질주의, 그리고 권익옹호형 탈물질주의 간의 상호작용항을 추가하여 시위참여에 미친 변수들의 영향력을 추론하고 있다.

[모형 1]에서는 이념($\beta=0.1151$, $t=-2.15$)의 부(-)의 영향력과 정치·비정치적 결사체 활동($\beta=2.4547$, $t=7.03$)의 정(+)의 영향력이 확인되었다. 즉 진보적 이념을 가질수록, 정치 및 비정치적 결사체에 가입하여 활동할수록 시위참여가 촉진되었다는 것이다. 그 외 물질주의 및 탈물질주의의 가치와 다른 독립변수의 유의미한 영향력은 나타나지 않았다.

[모형 2]는 물질주의 상호작용항을 검증한 모형이다. 추정결과에 의하면, 연령($\beta=-1.1459$, $t=-2.22$) 및 소득($\beta=-0.6101$, $t=-2.62$)의 부(-)의 영향과 투표활동 지향도($\beta=1.7046$, $t=3.77$) 및 정치·비정치 결사체 활동($\beta=8.9330$, $t=4.69$)의 정(+)의 영향이 나타났다. 그리고 상호작용항에서는 연령×물질주의($\beta=0.2050$, $t=2.24$)와 소득×물질주의($\beta=0.0998$, $t=2.40$)의 정(+)의 영향, 그리고 투표활동 지향도×물질주의($\beta=-3263$, $t=-4.11$)와 정치·비정치 결사체 활동×물질주의($\beta=-1.1961$, $t=-3.47$)의 부(-)의 영향력이 도출되었다. 이는 연령과 소득이 낮을수록, 평상시 투표활동과 정치·비정치적 결사체 활동을 많이할수록 시위참여를 많이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물질주의의 가치와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 연령과 소득이 높고, 상대적으로 투표 이외의 비투표활동을 많이 하고, 정치·비정치적 결사체 활동을 하지 않을수록 시위참여가 많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모형 3]은 참여·표현형 탈물질주의와 상호작용을 검증한 모형으로, [모형 2]와 유사한 경향성을 보인다. 연령($\beta=-1.3686$, $t=-2.64$)의 부(-)의 영향과 투표활동 지향도($\beta=1.1163$, $t=2.50$) 및 정치·비정치 결사체 활동($\beta=6.3054$, $t=3.12$)의 정(+)

의 영향력이 확인되었다. 즉 연령이 낮을수록 투표활동을 많이할수록, 다양한 결사체에 가입하여 활동할수록 시위참여를 많이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상호작용항에서는 연령×참여·표현형 탈물질주의($\beta=0.2655$, $t=2.66$)의 정(+)의 영향과 투표활동지향도×참여·표현형 탈물질주의($\beta=-0.2423$, $t=-2.81$)의 부(-)의 영향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참여·표현형 탈물질주의 가치와 상호작용이 발생하면, 연령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투표 이외의 비투표활동을 많이 할수록 시위에 많이 참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형 4]는 권익옹호형 탈물질주의의 상호작용을 검정하는 모형이다. 추정결과에 의하면, 정치·비정치 결사체 활동($\beta=3.7326$, $t=2.45$)의 정(+)의 영향과 이념×권익옹호형 탈물질주의($\beta=-0.1129$, $t=-2.62$)의 부(-)의 영향만 확인되었다. 즉 평상시 정당과 취미동호회 등 다양한 정치 및 비정치 결사체에 가입하여 활동할수록, 그리고 진보적이면서 권익옹호형 탈물질주의 가치가 높은 경우 시위참여가 많았다는 것이다.

〈표 4〉 시위참여의 결정요인

구분	[모형 1] 기본모형		[모형 2] 물질주의 상호작용		[모형 3] 참여·표현형 탈물질주의 상호작용		[모형 4] 권익옹호형 탈물질주의 상호작용	
	추정치	t값	추정치	t값	추정치	t값	추정치	t값
상수	0.9787	0.88	3.7229	0.84	0.1247	0.03	-1.7816	-0.53
성별	0.3127	1.37	1.1871	0.90	-0.6515	-0.49	-0.7268	-0.68
연령	-0.017	-0.20	-1.1459*	-2.22	-1.3686**	-2.64	0.0872	0.23
학력	0.0782	0.71	-0.8855	-1.52	-0.3697	-0.63	0.2681	0.59
소득	-0.0669	-1.47	-0.6101**	-2.62	-0.1965	-0.82	-0.2096	-1.12
이념	-0.1151*	-2.15	-0.4614	-1.33	0.5068	1.54	0.3943	1.94
전통미디어 지향	-0.0031	-0.66	0.0249	0.95	0.0306	1.14	-0.0002	-0.01
투표활동 지향	-0.1229	-1.60	1.7046**	3.77	1.1163**	2.50	0.0242	0.08
공적신뢰 지향	0.2354	1.28	1.9549	1.60	0.4352	0.36	0.6553	1.21
정치효능감 지향	0.0755	0.77	0.2119	0.45	-0.1649	-0.34	-0.2270	-0.56
정치·비정치 결사체 활동	2.4547*	7.03	8.9330**	4.69	6.3054**	3.12	3.7326*	2.45
비정치 결사체 활동	0.1150	0.44	2.3715	1.59	1.9774	1.28	-0.4237	-0.35
물질주의	-0.0287	-0.18	-0.5640	-0.73	-0.0987	-0.61	-0.0663	-0.42
참여·표현형 탈물질주의	0.1453	0.85	0.1195	0.70	0.3693	0.42	0.1087	0.63
권익옹호형 탈물질주의	-0.0906	-0.74	-0.0351	-0.28	-0.1105	-0.89	0.6173	0.88
성별×물질/ (참):(권)탈물질주의	-	-	-0.1639	-0.70	0.1862	0.72	0.2407	1.05
연령×물질/ (참):(권)탈물질주의	-	-	0.2050*	2.24	0.2655**	2.66	-0.0269	-0.32
학력×물질/ (참):(권)탈물질주의	-	-	0.1741	1.68	0.0884	0.79	-0.0465	-0.46
소득×물질/ (참):(권)탈물질주의	-	-	0.0998**	2.40	0.0251	0.55	0.0307	0.76
이념×물질/ (참):(권)탈물질주의	-	-	0.0591	0.99	-0.1157	-1.91	-0.1129**	-2.62
전통미디어 지향×물질/ (참):(권)탈물질주의	-	-	-0.0049	-1.05	-0.0066	-1.27	-0.0005	-0.11
투표활동 지향×물질/ (참):(권)탈물질주의	-	-	-0.3263**	-4.11	-0.2423**	-2.81	-0.0294	-0.42
공적신뢰 지향×물질/ (참):(권)탈물질주의	-	-	-0.2882	-1.42	-0.0396	-0.19	-0.0853	-0.76
외적효능감 지향×물질/ (참):(권)탈물질주의	-	-	-0.0236	-0.28	0.0476	0.52	0.0651	0.75
정치·비정치 결사체×물질/ (참):(권)탈물질주의	-	-	-1.1961**	-3.47	-0.7543	-1.94	-0.2800	-0.85
비정치 결사체×물질/ (참):(권)탈물질주의	-	-	-0.4185	-1.56	-0.3651	-1.22	0.1241	0.48
모형 적합성	F(prob.)	6.90(0.0001)	5.61(0.0001)		4.76(0.0001)		4.32(0.0001)	
	r ²	0.0768	0.1087		0.0939		0.0859	
	DW	2.11	2.10		2.11		2.11	

**p<0.01, *p<0.05

3. 분석결과의 종합 및 함의

분석결과를 종합해 보면, 물질주의 혹은 탈물질주의 가치가 사회경제적 특성과 이념 및 정치적 관여와 상호작용을 통해서 시위참여로 이어진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시에 시위참여의 결정요인은 여전히 전통적 요인이 우세하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일반적 통념이 재확인되었고, 전통적 요인이 두 가지 가치와 상호작용에 의해서 그 영향력이 달라진다는 점도 규명되었다. 분석결과를 요약하여, 그 의미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물질주의 및 탈물질주의 가치는 중간값 이상의 인식을 보였으나, 상대적으로 물질주의(5.55) 가치가 참여·표현형 탈물질주의(5.14) 및 권익옹호형 탈물질주의(4.53)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시위참여자가 비참여자에 비해 국민 및 지역 차원에서의 참여 확대와 언론 및 자기표현의 자유를 중요시하는 참여·표현형 탈물질주의 가치가 높았다.

둘째, 전통적 요인의 영향력도 유효하였다. 사회경제적 특성 중 연령과 소득 및 이념, 그리고 정치적 관여 변수 중 투표활동 지향도와 정치·비정치 결사체 활동은 시위참여를 추동하는 요인이었다. 이들 변수의 영향력은 물질주의 혹은 탈물질주의와 상호작용을 고려한 모형에서도 유효하였다. 구체적으로 연령과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 상대적으로 투표활동에 적극적인 사람, 진보적 이념을 가진 사람, 그리고 취미동호회를 포함해 정당·노동조합·시민단체 등의 결사체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사람들의 시위참여가 높았다. 특히 결사체 활동의 영향력이 가장 강하였다. [모형 1]을 비롯하여 물질주의 및 탈물질주의 가치와 상호작용을 고려한 [모형 2], [모형 3], [모형 4]에서도 정치·비정치 결사체 활동의 영향력은 일관되게 나타났고, 추정계수의 절댓값도 가장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조직적 유대에 기초한 사회적 네트워크가 시위참여를 촉진한다는 서구 및 한국의 경험적 논의(도묘연 2017b, 2021; Schussman and Soule 2005)와 맥을 같이하며, 평상시 결사체의 활동이 시위참여를 확대한다는 사회자

본론의 이론적 및 경험적 논의를 재확인시켜 주었다. 또한 평상시 투표활동에 적극적인 사람들이 시위에 많이 참여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시위는 평상시 다양한 결사체 활동과 정치참여 활동을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참여의식을 축적한 시민들에 의해서 주도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시위는 진보적 이념과 젊은층이 주도하여 일정 정도 이념 및 세대균열 구조가 반영되는 한계도 나타났다. 그리고 낮은 소득수준의 영향은 한국의 시위가 서구처럼 중상위 계층이 주도하는 형태로 전환되지 않았다는 점을 함의한다.

셋째, 물질주의의 가치는 연령, 소득, 투표활동 지향도, 정치·비정치 결사체 활동과 상호작용에 의해서 시위참여를 촉진하고 있었다. 특히 이들 변수의 영향은 물질주의와 상호작용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와 고려한 경우에 차이가 있었다. 물질주의와 상호작용이 없는 경우는 낮은 연령과 소득수준 및 적극적인 투표활동과 정치·비정치 결사체 활동이 시위참여를 추동했다. 그러나 상호작용이 있는 경우는 높은 연령과 소득수준 및 낮은 투표활동과 정치·비정치 결사체 활동이 시위참여를 이끌고 있었다. 즉 물질주의의 가치를 소유한 경우 상대적으로 중장년층, 경제적으로 중상위계층, 평상시 투표 이외에 민원제기와 정치토론과 같은 정치참여를 실천하는 사람, 그리고 정당과 취미동호회 등 결사체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시위에 많이 참여한다는 것이다. 이는 물질주의의 가치에 의해 전통적 요인의 영향력이 달라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경제적 및 신체적 안전, 즉 경제발전, 범죄 소탕, 방위력 증가의 신체적 안전을 중시하는 물질주의의 가치는 직접적으로 시위참여를 이끌지는 못했다. 그러나 물질주의의 가치는 사회경제적 특성과 평상시 정치적 관여와 상호작용에 의해서는 시위라는 직접적 행동으로 발현되었다. 이 점은 한국의 시위에 물질주의 가치를 추구하려는 대중들의 의지가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실제 1997년부터 2008년까지 이어진 한국의 시위에서 표출된 요구는 물질적 보상이나 경제적 요구가 40%를 차지했다고 한다(동아시아연구원 2008). 즉 전통적으로도 물질주의의 가치가 시위의 주요한 이슈였다는 것이다. 시위에서 물질

주의 가치의 표출은 현재 한국사회의 경제적 위기가 지속하는 한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신자유주의 열폐자의 양산에 따른 경제적 위기와 남북대치라는 상황에서 경제적 및 신체적 안정을 바라는 사람들의 요구는 연령과 소득 혹은 평상시 정치참여 활동과 결합하여 시위참여로 이어질 수 있다.

넷째, 참여·표현형 탈물질주의 가치는 연령과 투표활동 지향도와, 그리고 권익옹호형 탈물질주의는 이념과 상호작용에 의해서 시위참여를 추동하는 변수로 확인되었다. 이 경우 참여·표현형 탈물질주의 가치와 전통적 요인의 상호작용은 [모형 2]와 동일한 패턴을 보였다. 낮은 연령과 높은 투표활동은 직접적으로 시위참여를 이끄는 요인이었으나, 이들 요인은 참여·표현형 탈물질주의와 상호작용이 발생할 경우 높은 연령과 낮은 투표활동이 시위참여를 이끌고 있었다. 즉 국민참여와 표현 및 언론의 자유를 중시하는 동시에 연령이 낮고 투표 이외의 비투표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의 시위참여가 많았다는 것이다. 반면 권익옹호형 탈물질주의는 진보 이념과 결합하여 직접적 행동으로 발현되었다. 즉 국제적 및 국내적 차원에서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옹호하는 가치가 높고 진보적 정향을 가진 사람들이 시위에 많이 참여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참여·표현형 탈물질주의 및 권익옹호형 탈물질주의 가치 역시 시위참여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전통적 요인과 결합이 필요하며, 참여·표현형 탈물질주의 가치에 의해 연령과 투표 및 비투표활동의 영향력은 달라졌다. 이 점은 탈물질주의 가치를 추구하려는 요구 역시 시위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기존 연구자들이 주목했던 전통적인 참여·표현형 탈물질주의 가치와 새롭게 확인된 권익옹호형 탈물질주의 가치는 모두 우리 사회에 현존하며, 그 인식은 평균을 뛰어넘는 수치였다. 한국 시위의 전면에 등장했던 탈물질주의 가치는 주로 국가권력의 확대에 따른 저항, 국민 참여의 확대, 표현의 자유 확대 등과 같은 권위적인 정부에 대항하는 성격이 강했다. 그러나 국제적 난민과 성소수자를 포함한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 등 신사회운동의 성격을 가지는 탈물질주의 가치 역시 진보적 이념과 결합하여 시위를 이끄는 하나의 이슈로 확인되었다.

V. 결론

지금까지 이 연구는 전통적 요인과 물질주의 및 탈물질주의 간 상호작용의 맥락에서 시위참여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개인의 가치는 평상시 이념과 정치적 관여와 결합할 때 정치참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제하에, 탈물질주의 가치 이외에 한국 사회에 현재하는 물질주의 역시 시위참여의 주요한 동기가 된다는 점을 환기하는 작업이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연구에서 크게 주목하지 못했던 새로운 탈물질주의 유형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첫째, 물질주의 및 탈물질주의 가치는 중간값 이상의 인식을 보였으며, 상대적으로 물질주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더 높았다. 둘째, 물질주의 및 탈물질주의 가치는 전통적 요인과 상호작용에 의해서만 시위참여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물질주의는 높은 연령과 소득수준, 투표 이외의 비투표활동, 낮은 정치·비정치 결사체 활동과, 참여·표현형 탈물질주의는 높은 연령, 투표 이외의 비투표활동과, 그리고 권익옹호형 탈물질주의는 이념과 상호작용에 의해서 시위참여를 추동하였다. 셋째, 전통적 요인의 영향력은 여전히 강력하였다. 낮은 연령과 소득, 평상시 투표활동, 정치·비정치 결사체 활동, 그리고 진보 이념은 시위참여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이중 결사체 활동의 영향력이 가장 높았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물질 및 탈물질주의 가치가 직접적으로 시위참여를 추동하지 않으며, 평상시 이념과 태도 및 정치참여 방식과 결부되어 직접적 행동으로 구체화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시위참여의 직접적인 동기는 가치보다는 이념이나 정치적 관여의 영향이 더 강하지만, 물질주의와 탈물질주의 가치는 시위참여를 간접적으로 추동하는 잠재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향성은 탈물질주의뿐만 아니라 물질주의에서도 동일하게 관찰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시위는 아노미적이고 일탈적인 행위를 넘어서 시민의 이익과 열정을 표출하는 축제로, 나아가 제도화된 정치참여와 동일한 위상을 부여받고 있다. 즉 시위의 일상화가 목격되는 것이다. 한국의 2016-17년 촛불집회는 시위

의 일상화 혹은 운동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한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제 시위의 무용론을 주장하면서 사회적 요구를 제도정치를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보다 거리 정치의 요구를 제도권이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는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한국 사회에서 시위 일상화가 보편화되는 시점에서 이 연구의 분석결과는 한편으로는 물질주의 혹은 탈물질주의의 가치가 전통적 요인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시위라는 직접적 행동으로 표출된다는 점을 강조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내면화된 물질주의 혹은 탈물질주의의 가치에 의해 발현되는 시위의 새로운 성격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물질주의의 가치는 우리 사회를 관통하는 시위의 주요 이슈이다. 경제적 안정을 갈망하는 요구는 신자유주의의 광풍이 지속하는 한 여전히 유효할 것이다. 더욱이 코로나 19 이후에 마주할 수 있는 경제적 위기감은 물질주의의 요구를 거리 혹은 과정에서 분출시키는 촉매제가 될 수도 있다. 또한 분단이라는 특수성상 신체적 안정을 희망하는 대중의 요구도 분명 존재할 것이다. 잉글하트의 탈물질주의 논의가 2차 세계대전 이후의 물질적 및 신체적 안정이 보장된 사회를 상정했다면, 한국이 처한 사회경제적 현실은 여전히 물질주의의 가치가 유세한 동시에 시위의 이슈로 유효할 수 있음을 상기시킨다.

둘째, 신사회운동의 성격을 가지는 탈물질주의의 가치 역시 시위의 주요한 이슈 중의 하나이다. 과거 민주화 운동의 무게감은 탈물질주의의 가치를 권위적인 국가 권력에 대한 저항과 참여 혹은 개인의 표현과 언론의 자유라는 측면에서만 바라보게 했다. 물론 이들 가치는 현재 한국 사회에서도 현존하며, 전통적 요인과 상호작용하여 시위참여를 이끌고 있다. 최근 한국뿐만 아니라 서구에서 정부의 코로나 19 방역 규제를 반대하는 시위의 주요한 동기는 자유의 확대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신사회 운동이 표방했던 여성권의 신장, 국제난민에 대한 지원, 성적 소수자의 존중 등의 탈물질주의의 가치도 진보적 이념과 결합되어 우리의 시위 현장에서 표출되는 주요한 이슈이다. 우리는 이미 먹거리 안정성을 외치며 광장으로 모여들었던 2008년 촛불집회도 경험했다. 한국 사회가 좀 더 경제적 안정을

담보한다면, 그리고 좀 더 민주주의가 공고해진다면, 신사회 운동적 탈물질주의 가치는 시위 현장에 더 많이 표출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이 연구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애초 자료수집이 시위참여자와 비참여자에 초점을 두지 않아 참여자에 비해 비참여자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았다. 또한 설문조사의 시점 역시 문재인 정부에서 치러진 총선 이후이기 때문에 촛불 집회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물론 촛불집회 참여와 일반시위 참여를 분리한 설문문항을 제시했으나, 촛불집회의 영향을 완전히 배제했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따라서 향후 연구는 자료수집 과정에서 시위참여자의 규모를 확대하는 동시에 코로나 19 종식 이후 개인의 시위참여가 다시 활성화된 시점에 자료를 수집하여 이 연구의 주장을 재검증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경찰청. 2020. 『2019년 경찰통계연보』. 서울: 경찰청.
- 김명숙. 2008. “물질주의 및 탈물질주의의 영향요인과 정치적 효과에 관한 경험적 연구.” 『한국자치행정학보』 22권 1호, 61-78.
- 김상돈·김태준. 2008. “자발적 결사체 가입이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 정치효능감과 시민권 덕목의 매개효과분석.” 『사회과학연구』 16집 1호, 68-113.
- 김욱. 2010. “촛불 시위와 한국 시위문화의 변화: 거시적 변화에 따른 미시적 전망.” 『한국정당학회보』 9권 2호, 33-59.
- 김욱·이이범. 2006. “탈물질주의와 민주주의: 한국과 일본의 정치문화 변동 비교.” 『한국정당학회보』 5권 2호, 89-124.
- 도묘연. 2017a. “2016년-2017년 박근혜 퇴진 촛불집회 참여의 결정요인.” 『의정연구』 23집 2호, 109-146.
- 도묘연. 2017b. “결사체 활동, 시민성, 그리고 촛불집회 참여의 경로 구조.” 『현대정치연구』 10권 2호, 5-41.
- 도묘연. 2021. “한국 대중의 포퓰리즘 성향이 시위 참가에 미치는 영향.” 『한국정치연구』 30집 1호, 93-126.
- 동아시아연구원. 2008. 『집회시위를 통해 본 시민사회 프로젝트Ⅱ 민주화 이후 항의의 정치: 특징과 개선방향』. 서울: 동아시아연구원. http://www.eai.or.kr/m/research_view.asp?intSeq=14373&code=70&menu=(검색일: 2021.01.21.)
- 류태건·차재권. 2021. “지난 40년간 한국의 정치향의의 사회적·집단적 변화추이와 그 영향요인에 대한 분석.” 『한국정치학회보』 55집 5/6호, 35-68.
- 박영득·이재묵. 2017. “SNS활용과 정치참여 한국 제20대 총선 분석.” 『연구방법논총』 2집 1호, 1-22.
- 성동규·양소정·김양은·임성원. 2007. “온-오프라인 정치참여에 대한 미디어 영향력 비교연구.”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24호, 1-50.
- 송경재. 2013. “사회적 자본과 한국의 시민참여: 관습적·비관습적 참여와 사회적 자본.” 『한국정당학회보』 12권 2호, 221-244.

- 양해만·조영호. 2018. “한국의 사회경제적 변화와 탈물질주의: 왜 한국인들은 여전히 물질주의적인가?” 『한국정치학회보』 52집 1호, 75-100.
- 어수영. 2004. “가치변화와 민주주의 공고화: 1990-2001년 간의 변화 비교연구.” 『한국정치학회보』 38집 1호, 193-214.
- 이갑윤. 2010. “촛불집회 참여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및 정치적 정향과 태도.” 『한국정당학회보』 9권 1호, 95-119.
- 이정기. 2011. “온·오프라인 공간에서의 저항적(대안적) 정치참여에 관한 연구: 미디어 이용량, 미디어 신뢰도, 정치신뢰도, 정치효능감이 저항적(대안적) 정치참여 경험과 의도에 미치는 영향.” 『미디어, 젠더 & 문화』 18호, 74-109.
- 이정기·정대철. 2009. “광우병 촛불집회에 나타난 미디어 2.0 현상에 관한 연구.”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 16호, 193-244.
- 이혜인·홍준형. 2013. “정부신뢰와 시민참여: 지난 두 정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활용한 실증분석.” 『한국행정논집』 25집 3호, 791-820.
- 정병기. 2017. “68혁명운동과 비교한 2016/2017 촛불 집회의 비판 대상과 참가자의식.” 『동향과 전망』 101호, 261-291.
- 정병기. 2018. “68혁명운동, 6월 항쟁, 촛불집회: 운동양상의 변화와 의미.” 정병기·도모연·김찬우. 『2016-17년 촛불집회: 민주주의 민주화, 그 성격과 의미』 경산: 영남대학교 출판부, 195-225.
- 조기숙·박혜윤. 2008. “광장의 정치와 문화적 충돌: 2008 촛불집회에 대한 경험적 분석.” 『한국정치학회보』 42집 4호, 243-268.
- 차현진. 2021. 『촛불시위의 미시적 동학』.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치안정책연구소. 2021. 『치안전망 2022』. 아산: 치안정책연구소.
- 홍혜승·류은영. 2015. “신뢰가 정치효능감과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 구조방정식 모형을 적용하여.” 『한국인사행정학보』 14권 2호, 131-155.
- Bomhoff, Eduard J., and Mary M. Gu. 2012. “East Asia Remains Different a Comment on the Index of “self-Expression Values,” by Inglehart and Welzel.”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43(3): 373-383.
- Cho, Kisuk and Hye Yun Park. 2019. “Who Protest and Why? The Evolution of South

- Korean Civic Activism Since 2019.” *Korea Observer* 50(4): 535-563.
- Cho, Seong kyung, and In-Jin Yoon. 2015. “The International Comparison of Post-Materialism.” *Development and Society* 44(3): 495-533
- Gibson, James L. and Raymond M. Duch. 1994. “Postmaterialism and the Emerging Soviet Democracy.” *Political Research Quarterly* 47(1): 5-39.
- Inglehart, Ronald and Paul A. Abramson. 1994. “Economic Security and Value Chang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8(2): 336-354.
- Inglehart, Ronald. 1971. “The Silent Revolution in Europe: Intergenerational Change in Post-Industrial Societie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5: 991-1017.
- Inglehart, Ronald. 1990. *Culture Shift in Advanced Industrial Society*.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Inglehart, Ronald. 1997. *Modernization and Postmodernization: Cultural, Economic, and Political Change in 43 Societie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Knutsen, Oddbjørn. 1990. “Materialist and Postmaterialist Values and Social Structure in the Nordic Countries: A Comparative Study.” *Comparative Politics* 23(1): 85-104.
- Maslow, Abraham H. 1943. “A Theory of Human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50(4): 370-396.
- Meyer, David S. and Sidney Tarrow. 1998. “A Movement Society: Contentious Politics for a New Century.” David S Meyer and Sidney Tarrow, eds. *The Movement Society Contentious Politics for a New Century*. Lanham: Rowman and Littlefield Publishers.
- Milbrath, Laster W. and M. Lal Goel. 1977. *Political Participation: How and Why Do People Get Involved in Politics?*. Chicago: McNally College Publishing Company.
- Norris, Pippa and Stefaan Walgrave and Peter Van Aelst. 2005. “Who Demonstrates Antistate Rebles, Conventional Participants, or Everyone?” *Comparative Politics* 37(2): 189-205.

- Norris, Pippa. 2001. *Digital Divide: Civic Engagement, Information Poverty, and the Internet Worldwid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Opp, Karl-Dieter. 1990. "Postmaterialism, Collective, and Political Protest."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4(1): 212-235.
- Pollock, Phillip H. 1983. "The Participatory Consequences of Internal and External Political Efficacy: A Research Note." *The Western Political Quarterly* 36(3): 400-409.
- Putnam, Robert. 2000.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New York: Simon & Schuster Paperbacks.
- Rucht, Dieter. 2007. "The Spread of Protest Politics." Russell J. Dalton and Hans-Dieter Klingemann, eds. *The Oxford Handbook of Political Behavior*.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DOI: 10.1093/oxfordhb/9780199270125.003.0038
- Schussman, Alan and Sarah A. Soule. 2005. "Process and Protest: Accounting for Individual Protest Participation." *Social Forces* 84(2): 1083-1108.
- Tarrow, Sidney and Charles Tilly. 2007. "Contentious Politics and Social Movement." *The Oxford Handbook of Comparative Politic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Welzel, Christian and Franziska Deutsch. 2012. "Emancipative Values and Non-Violent Protest: The Importance of 'Ecological' Effects."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2(2): 465-479.

투고일: 2022.02.22.	심사일: 2022.03.25.	게재확정일: 2022.03.25.
------------------	------------------	--------------------

Determinants of Participation in Protests in Korea: Focusing on the Interaction Effects between Traditional factors, Materialism, and Post-Materialism

Do, Myo Yuen | Keimyu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determinants of participation in protests. To be specific, The factors affecting participation in protests were analyzed focusing on the interaction effect between materialism, post-materialism, and traditional factors namely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ideology, and political engagement. The analysis period and subjects were limited to general protests after the 2016-2017 candlelight protest.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 values of materialism and post-materialism showed awareness above the median value. Awareness of materialism was relatively higher than of post-materialism. Second, it was found that the two values influenced protest participation only through interaction with traditional factors. Materialism had an effect on protest participation via interaction with relatively high age and income level, non-voting activity, and low political-non-political association activity. One of the types of post-materialism: Participation-expression, had an effect on protest participation via interaction with high age and non-voting activity. Another type of post-materialism: Advocacy, had an effect on protest participation via interaction with ideology. Third, the influence of traditional factors was still significant. Low age and income, voting activity, political-non-political association activity, and progressive ideology promoted protest participation, with association activities having the highest influence.

Key Words | Protest Participation, Materialism, Post-Materialism, Political Engagement, Ideology